

“현장에 답이 있다” 연일 현장행정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서학예술마을·완산공원 일대 등 주요사업장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시정목표인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구현하기 위해 연일 주요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인 서학예술마을 예술광장 조성사업 현장,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지,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 조성지 등 시장 주요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연일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우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민선8기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반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날 평화동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부지를 방문한 우 시장은 공사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도비 21억 원 등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인구가 밀집된 남부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시정목표인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구현하기 위해 연일 주요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용공간이다. 시는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된 만큼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어 서학예술마을 예술광장 조성 사업부지 △전주동학농

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민(民)의 광장 조성 예정지 △국비 93억 원 등 186억 원이 투입되는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지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 조성 예정지 등 완산공원 일대를 잇달아 찾아 문화·관광 분야를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구상을 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난날 1일 첫 방문지로 팔복동 (주)전주페이퍼를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5일에는 농도 전북의 위상에 걸맞은 농업정책 구상을 위해 농업현장을 찾았고, 15일에는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찾아 안전 예방시설을 점검했다.

취임 직후부터 간부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 시장은 향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가 다시 큰 그림, 큰 뜻을 가지고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주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장 점검과 유관기관 간담회 등 현장에서 답을 찾고, 때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사회적경제 관심 있는 청년 모여라”

전주시, 19일까지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는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년 2~5명이 한 팀이 돼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소개·홍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서포터즈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을 2회 이상 방문한 뒤 대표자 인터뷰와 생산물(서비스) 체험, 근로자 인터뷰, 사회서비스 활동 등의 참여후기를 SNS에 올리게 된다. 또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등 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서포터즈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통비와 식대 등 활동실비와 SNS 포스팅 수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과 발표 및 우수 활동 팀에 대한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포스팅이 가능한 전북지역 만 18~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wjtwr2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063-281-2557)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서포터즈로 활동할 청년을 선정한 뒤 오는 26일 선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현도 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청년들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역사회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하고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있는 사회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전주시, 융자한도액 중소기업 3억원·소상공인 2000만원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전주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하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

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진흥원 본관 3층에 위치한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공문으로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동조합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29일 기업유치의 초석이 될 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전주시 투자유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될 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신규위원은 윤병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한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신규위원들은 이날 전주시 기업유치 현황과 투자환경에 대한 김종성 시장장사회연대경제국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내 투자유치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또 우량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산단내 문화 기능을 담당할 시설유치 등 기업 유치에 관한 행정적·재정적·문화적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신규위원들이 향후 2년간 쌓아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속도감 있고 과감한 업무 추진 임해 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우범기 전주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속에서 속도감 있는 시정 추진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1일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출연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의 위기를 다잡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고 과감한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특히 조직개편 앞두고 들뜰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조직개편은 업무 효율과 민선8기 시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시민불편이나 업무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각 국별로 추진 중인 주요업무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무더위 후 찾아올 태풍 피해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 및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등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우 시장은 폭염이 가승을 부리는 8월을 맞아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등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등 시민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한 달이 지난 만큼 시민들이 새로운 시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지리한 현장 점검을 통한 문제점 보고 △근원적 문

제해결 대책 마련 △지체 없는 행정 절차 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은 “8월은 폭염과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휴가철을 맞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등 우리 공직사회가 행여야 할 것이 많은 시기”라며 “여름 휴가철과 조직개편 등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시민들에게 변화된 전주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과감한 업무 추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